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SOS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무사히 신장이식받고

건강회복 중인 엄마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움 받은 이복자 환자의 딸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투병한 엄마가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새벽 내내 구토하고 숨도 못 쉬며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든 투석을 미루려 병원에 가기를 저어했습니다. 야속하게도 경희대병원에서 엄마의 투석이 시작됐습니다. 장기이식센터에 장기이식 대기자로 이름도 올렸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제 몸 아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남매가 신장을 드리겠다고 해도 엄마는 해준 것도 없는데 자식 신장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생활이 고단한데 남편마저 병상에 눕힐 수 없다며 아버지의 신장 또한 거절했습니다. 장기이식센터에서는 대기자로 올려도 빠르면 5년, 아니면 10년 이상 기다리며, 조직검사 결과가 100% 맞는 신장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등록 순서와 상관없이 1순위가 되겠지만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투석을 받은 지 1년여가 지난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의 이른 아침, 장기이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0% 맞는 신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고, 엄마는 당일 밤에 무사히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입니다. 약을 먹기 위해 한두 숟가락 먹고 물리던 전과는 달리 식사도 잘 하고, 투석 받을 때는 맘대로 먹을 수 있던 물도 마음껏 마십니다. 다만 급작스레 진행된 수술이었고, 평소에도 많지 않던 가족들의 돈벌이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뚝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비 마련이 걱정이었습니다. 국가의 치료비 지원은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

다.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한편, 경희대병원 사회사업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산재단과 인연이 닿아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미 발생한 수술비뿐 아니라 날마다 더해지는 병원비를 걱정하던 엄마는 소식을 듣고 마음 편히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술 날부터 지금까지 기적과 사랑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산재단이 저희 가족에게 주신 사랑으로 저희 엄마는 어제보다 건강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숨을 틔워줄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글 이복자 환자의 딸 서울시 동대문구